



자연주의

이춘성

1.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틀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내막을 알아보면 이들이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거나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과학 지식을 무시하고 오히려 기독교를 신비적으로 만들려한다. 이와 반대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무신론적 배경을 등뒤로 숨기고 객관적 지식을 자신의 무신론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한다. 그래서 순수한 과학적 사실과 관찰자의 세계관 사이의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혼돈스러운 것이 현대과학의 현 주소이다. 그러나 이런 혼돈이 있는 주된 이유는 우리의 생각의 체계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 그것은 완전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 있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자신의 책에 창조대항 생각을 썼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피조물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6일의 창조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도 우리의 세계관과 분리되어 살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 우리 원래부터 생각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일치하는 세계관을 찾길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철학의 역사와 과학의 역사, 미술의 역사는 이런 맥락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합하는 세계관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찾을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 후자의 경우, 어느 정도 희미하게 알지만 아주 미약해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신)을 통해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만을 통해 도전과 실패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옛 사람들이 찾은 최고의 지혜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들 안에 있는 불일치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를 믿고 있다. 이것을 바로 기독교 세계관(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와 반대를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선을 그어 혼돈스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럽고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손쉽게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을 자연주의라고 한다.

2. 자연주의란 무엇인가?

C. S. Lewis는 자연주의를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자연주의자라고 부릅니다.(p 213).”라고 정의한다. 그는 자연주의를 논하기 위해서 자연이란 단어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의로 먼저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자연은 오감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는 어떤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감각들로 인식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모든 예들을 통해 볼 때 자연은 그 스스로 혹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그리스어는 동사로 ‘성장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라틴어는 ‘탄생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p 214).”

루이스는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정의는 오감으로 아는 감각적인 대상이 아닌 그 자체가 자발적으로 작동하는가에 있다고 말한다. 자연은 ‘자연스럽다.’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이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물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이런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주의자들은 자연을 독립된 존재이며, 세상을 자발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거대한 과정(vast process)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전체 체계 가운데서 각자의 사건들은 서로 연관되어 인과(因果) 관계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하나의 개체는 자연이라는 완전한 그림(Whole show)의 일부이며 그 자체로 독립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연주의는 인과라는 자연법칙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예외라는 초자연 적인 현상들(기적)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아직 설명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 정도로 생각한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개입할 틈은 없는 것이다. 정리하면 자연주의는 인과법칙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을 말하며 자연(물질) 이외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초 세계관을 말한다.

3. 자연주의의 특징

이와 같은 자연주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와 같다. 자연주의는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자연만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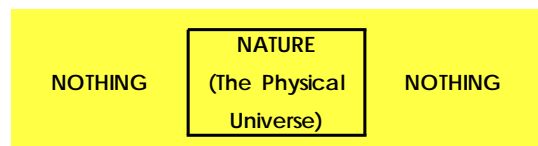
(a. Only Nature exists.)

2. 자연은 물질적인 체계이다.

(b. Nature is a materialistic system.)

3. 자연은 스스로 설명 가능한 체계이다.

(c. Nature is a self-explanatory system.)



4. 자연은 전체적 통일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d. Nature is characterized by total uniformity.)

5. 자연은 결정적 체계이다.

(e. Nature is a deterministic system.)

4. 자연주의의 발전

자연주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4.1 서양적 자연주의

서양적 자연주의는 자연(system)을 완전하다고 생각하며, 자연 그 자체에 만족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자연을 탐구하여 바른 법칙을 찾아 활용하면 인류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완전한 세상은 아직 자연법을 다 찾지 못한 것 때문이며, 찾으면 완벽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16세기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으며, 인본주의의 핵심 원리이며, 19세기 공산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현재는 과학주의, 기술주의와 같은 과학과 기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이미 기원전 490년 전부터 서양의 원자(Atom)이론으로부터 찾아 볼 수 있다. 모든 만물을 나뉘지 않는 최소의 단위로 환원 시켜 생각하고자 했던 자연철학자들의 생각은 신이 아닌 물질(자연)에서 세상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했다. 그러나 기독교 사회였던 서양에서 다시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든 것은 웨이퍼의 분석에 의하면 아퀴나스가 계시로부터 이성을 독립시킨 이후이다. 아퀴나스는 로마서 1장 19절의 “알만한 것”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후 아퀴나스의 이성에 대한 생각은 후대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 없이도 우리가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 순수한 진리에 도달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아퀴나스 스스로는 계시의 의미를 퇴색시키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후예들은 영국의 이신론과 독일의 자연주의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되었다. 특히 독일의 자연철학자들은 인간이 어떤 한 방향을 향해 진화하고 있고, 이 진화의 과정 가운데 종교나 여타 도덕적인 것은 잠시 동안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이 충분히 진화되어 더 이상 진화하지 않으면 종교나 도덕적 법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진화론은 다윈에 와서 절정에 이른다. 다윈이 역사 가운데 주목받는 이유는 쿤의 말을 빌리자면 “중의 기원은 신이나 자연 그 어느 것에 의해서 설정된 목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그 이전까지의 목적론적 어쩌면 신 의지적인 진화론에 반하는 이론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혁명이었다고 쿤은 말한다. 진화의 요소에서 신의 역할은 더 이상 부스러기도 남아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힘을 잃고 인간 세상에 방관자인 눈먼 시계공이 되어,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이다. 자연주의는 다윈주의 뿐 아닌 과학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러 과학자들은 과학이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 그리고 20세기 초 빈 학파를 중심으로 논리 실증주의가 합리성을 재정의 한다. 그들은 경험적이며 환원 가능한 것이 합리적이란 기준을 제시한다. 자명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질의 최소단위인 분자나 수학적 진리로 환원될 수 있는 것만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종교와 같이 믿음

과 사랑을 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이러한 것들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자신들이 스스로 비합리적이라고 정의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4.2 동양적 자연주의

동양적 자연주의는 자연에서 탈출하는 것이 참된 이치를 발견하는 최고 방법으로 생각하는 분류이다. 이것을 동양적 자연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에 큰 영향을 끼친 불교와 도교가 가지고 있는 공(空)사상과 무(無)사상은 자연으로부터 탈출을 통해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한다. 이들이 세상을 보는 기본적인 틀의 기초는 힌두교이다. 힌두교는 환생을 통해 인간과 자연 만물들이 순환한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 시스템 속에서 인과법칙을 따라 계속 순환하고, 이 고리를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전생애 자신의 잘못 때문에 현세가 고통스러운 것이니 현실에 수용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는 이것을 선한 것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고통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순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인과(因果)를 인정하지만 이 고리를 끊어야 인간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핵심 원리는 공(空)이다. 공(空)사상은 반야심경을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제 2단 제 3절 “이러하므로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눈·귀·코·혀·몸·뜻도 없고, 빛·소리·냄새·맛·감촉·법도 없고, 눈으로 보는 세계도 없고 또한 의식의 세계도 없다.”

제 2단 제 4절 “무명(無明)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고, 고(苦)·집(集)·멸(滅)·도(道)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이 된다.”

공(空)은 3절에서 물질세계의 부정하며 4절에서는 만물의 순환원리인 인과의 부정을 뜻한다. 공(空)은 바로 이런 모든 자연계를 뛰어 넘는 만물의 이치이며 어떤 면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도교의 무(無)는 공(空)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일본의 모로하시 데쓰지는 이야기한다. (그러나 노자는 이것을 도(道) 혹은 현(玄)이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한다. 이유는 무의 반대는 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할 것을 우려하여 그의 도덕경 마지막에 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무(無)와 유(有)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이들의 득도를 위한 방법은 극도의 자기부정에서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부정하며, 출가하면 세상은 물론 가족과도 인연을 끊고 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양적 자연주의는 고통 받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한 동경으로 신비주의로 빠지고 말았다.

이상에서 보면 서양이나 동양이 동일한 언어인 공(空), 무(無), Nothing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관이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인 결과가 아닐까?

그러면 이런 자연주의 세계관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자.

5. 자연주의의 결말

본격적인 자연주의의 영향은 서양의 계몽주의로부터 시작한 율리의 상실이다.

5.1 덕(진리)의 상실

16~18C서양의 계몽주의는 과거의 잘못된 권위에 도전하여 인간의 이성으로 다시 바른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서양의 사조(思潮)였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것이 아니었다. 이성(理性) 중심적인 그들의 사상의 결과는 2차 세계대전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합리화했다. 그리고 이런 범죄에 놀란 세상은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새로운 사조를 탄생시켰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자신의 사상을 주장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의도로 간주해서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의 이런 생각은 모두가 동일하게 알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가치(덕,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영역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대사상의 바탕에는 자연주의의 하수인들이 있다. 이것들은 다윈주의(진화론)와 회의주의 그리고 니체의 사상이다.

이 사상들이 어떻게 현대 사상에 영향을 주었는지 예를 들어 알아보자. 우리는 개구리를 보며 새를 상상할 수 없다. 우리들은 모두다 개구리를 개구리라고 하며 새를 새라고 부른다. 개구리들 사이에 청개구리, 독 개구리 등 다양한 종이 있었지만 그리고 새도 마찬가지로 이것이다. 우리가 다윈주의와 회의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종에서 다른 종으로 옮겨가는 것은 수 억년의 세월이 지나야 하겠지만 이것은 인간이 나누는 종의 분류에 의한 것이지 이것도 사실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야한다. 그러므로 매일 매일 개구리는 새로운 종으로 변하고, 사실 우리가 이것을 개구리라고 부르는 것은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명칭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도 변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도 변하고 보는 나 자신도 변한 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니체는 고전적인 불변하는 가치와 의미, 그리고 덕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다. 이런 세상에서 신이 있다 해도 더 이상 신(神)이 이 세상에서 안정과 행복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의 의지로 이 세상을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인간을 창조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모든 의미들도... 진리는 당신이 원하는 것 바로 그 차제이다.”

왜 이 다윈주의와 회의주의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다윈이 이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정직한 이유는 회의주의(懷疑主義)에 있었다. 계몽주의(啓蒙主義)는 이성을 최고의 순수하고 완전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성을 사용해 회의(의심)하고 또 다시 회의함으로 바른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정 없이 우리는 이성의 힘으로 그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회의를 위한 회의였다. 폴라니는 그의 책에서 의심을 위한 의심은 어떠한 희망도 주지 못하고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때 까지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선과 악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윈은 정직하게 회의를 위한 회의, 바로 회의주의의 결과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그리고 의미도 없는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일 뿐 확정된 희망과 목적을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식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까지 현대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무런 확정적(確定的)이고 불변(不變)하는 의미와 가치도 도덕도 없는 그런 세상 오직 우리에게만 생존을 위한 한시적(限時的)이고 상대적(相對的)인 생존 룰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5.2 생명윤리

그 결과는 생명공학의 발전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재작년에 주목할만한 책이 출판되었다. 그 책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Human Future"이다. 여기에서 그는 유전자 공학의 발전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그의 책에서 생명복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데; 우생학의 부활, 장기 매매, 경제적 소외의 심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어 과학을 통제하자고 주장한다. 그가 이와 같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어딘가에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 존엄의 개념이 존재한 다면, 그것은 철학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정치 세계에서조차 지켜야 하며…….”(p270)

자연과학의 발전을 이끌어온 자연주의는 인간존엄성을 위한 방향이 아닌 과학 자체를 위해 과학을 하도록 과학자들을 부추겨왔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과학의 발전이 인간을 지키는 것이란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이다. 자연주의적 과학은 인간 존엄성을 위협해 비극적인 결말을 예약하고 있다고 후쿠야마는 말한다. 바로 인간의 종말이다. 후쿠야마의 대안은 정치적인 기구를 이용한 통제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인본주의적 낙관론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속도는 늦출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인간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간들이 선택한 자연주의는 다시 인간존엄을 해치고 자연 스스로도 망가뜨리는 자가당착에 빠지고만 것이다.

6. 결론: 창조와 목적론(성경적 세계관)을 통한 변증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우주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배후에 절대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창조물들에게 의미를 부여했고 인간의 존엄성도 부여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해서 이 세상을 바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는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절대적인 존재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합니다. 그 첫 조건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바로 알 수 있고, 창조자가 만든 이 세계에서 모순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답은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래서 진정한 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할지 모른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최종적 해답이라니 어쩐지 숨막히는 기분이 들지 않나? 그것은 곧 정체가 된다는 건데. 이보게, 정체가 되는 것보다 더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 있겠나?” 이것은 루이스의 소설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그렇게 쉽게 주어진다면 내가 한 일은 뭐가?”라고 말하는 인간의 교만을 꼬집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답은 우리 옆에 이미 와 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같고, 힘들여 찾아야 할 것 같은, 그래서 정복의 기쁨이 조금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주어지고 말았다. 이는 우리가 전능자의 뜻을 모두 이해 할 수 없기에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하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면 이 두 세계관 중 어떤 세계관이 이 세상에 가장 부합되는 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며, 설득할 수 있을까? 프란시스 웨퍼는 이렇게 제안한다. “실제로 자신의 비기독교적 전제에 따라 논리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비기독교적 전제에 대

해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그는 실제 우주와 실제 사람으로부터 분리될 것이며, 대화와 의사소통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의 말처럼 자신이 믿는 세계관이 진리라면 이 세상에서 이것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일관적으로 살 수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세계관으로 살았을 때의 논리적 귀결이 무엇인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린 사랑과 겸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참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이 일은 시간이 필요하며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 자연주의를 맹신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변증은 기독교과학자들과 윤리학자, 철학자 등 삶의 현장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바른 본을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섭리(기독교 세계관)를 바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참고서적

텔라치, 과학철학, ivp, 2002

이안 바버,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김영사, 2002

모어랜드·레이놀즈, 창조와 진화에 대한 세 가지 견해, ivp, 2001

필립존슨, 다윈주의 허물기, ivp, 2000

호이까스, 과학과 기독교, ivp,

프랜시스 후쿠야마, Human Future, 한국 경제 신문, 2003

모로하시 제쓰지, 공자 노자 석가, 동아시아, 2000

토머스 S. 쿤, 과학혁명의 구조, 까치, 1999

마니클 폴라니, 개인적 지식, 대우학술총서, 2001

C. S. Lewis, Miracles, The Complete C. S. Lewis Signature Classic,
Harper San Francisco, San Francisco, 2002.

C. S. Lewis, The Great Divorce, The Complete C. S. Lewis Signature Classic,
Harper San Francisco, San Francisco, 2002.

John-Erik Stig Hansen, M.D., D.Sc., Do Miracles Occur?

Dick Keyes, True Heroism, NAVPRESS, 1995

Alasdair MacIntyre, After Virtue, Duckworth, 1985

OS Guinness, Long Journey Home, ZONDERVAN, 2001